



이주민선교의 도전, 지역교회의 응전

천천히 느리게, 이주민과 함께 가는 디아스포라 교회

국내로 이주해온 사람들 250만 명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을 '이주민 선교', 국외로 이주해간 750 여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한다.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은 향후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거점화하여 세계선교에 참여할 잠재적 일꾼들이며, 지금도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다. 이것이 작금 한국교회가 디아스포라 이주민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다.

현재 99개 교회와 선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GACX)'는 향후 10년 안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교회의 형태에는 가정교회, 펠로우십 단체, 지하 교회, 디아스포라 근로자·유학생·난민 및 BaMer들의 모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현상은 복음주의의 기독교의 세계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지역교회도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한국교회의 실

태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대형교회와는 달리, 규모가 작은 소형교회는 국내 이주민 사역이 여건상 힘에 부칠 수 있다. 또한 교회마다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보다 다양한 규모의 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해당 언어권의 외국인 사역자가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역자가 이주민인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주민 신학생들이 한국인 신학생처럼 똑같이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를 치르는 것부터 진입장벽이 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신학교는 외국인 사역자에게 강의를 제공할 때 언어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고, 향후 이들이 한국에서 목회자로 안수받고 허입되면 행정적으로 순조롭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예컨대 이주민 사역자가 주도하는 교회가 노회에 안정적으로 행정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도

유연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

사역자의 비자 문제에 관해서도 대형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KPM 연구국장 권효상 선교사에 의하면 현재 고신 교단의 진주 노회의 경우 이주민 사역자들을 노회 차원에서 케어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주민 사역자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 노회와 대형교회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예 이주민 교회를 입양하거나 지원하는 방향도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교회의 사례처럼 지역과 관계없이 이주민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아예 하나의 노회로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 귀국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들은 언어 능력과 타문화적 배경을 이미 갖춘 자원이다. 반면에 지역교회는 인적·물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국내 이주민 인구가 약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교회와 선교사의 협력은 상생을 넘어 세계선교의 방향을 강하게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이주민선교의 무게를 지역교회에 두고, 이주민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교회 모델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지에 실린 교회들은 국내 이주민들을 이방인과 객처럼 대우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인의식을 부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특징이 있다. 또한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과의 인터뷰에는 미래 교회 교육에 대한 선구자적 견해와 국내 이주민 대상 비정규 교육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2023년에는 한국교회가 이주민선교 영역에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신년메시지를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로 담아보았다.

함께 걷기, 느리게 걷기



시티센터교회 담임목사
Ulsan Global Friends 대표
Gospel City Ministry 운영위원

글

신치현 목사

필자가 섬기는 시티센터교회는 울산교회에서 영어예배부로 약 15년간 존재하다가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교(mission with migrants)'의 모델로 개척된 교회이다. 중대형 규모의 교회 안에서 영어예배부로 있을 때는 본 교회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원활한 봉사자 확보, 자유로운 공간 및 차량 사용 등 사역에 다양한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리더십·봉사·헌금·전도·부서 내 의사 결정 등 사역의 대부분이 한국인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청년부 예배가 동시간 대에 진행되어서 영어예배부에 참석하는 한국인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높은 점, 봉사자들이 영어로 이주민 멤버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필자가 영어예배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면서 '봉사자(helper)'라는 호칭을 없애고 한국인을 '한국인 멤버(Korean Member)'로, 영어권 이주민들을 '영어 멤버(English Member)'로 호칭을 변경했다. 또한 리더십, 의사결정, 봉사 등 많은 부분을 이주민 멤버들에게 이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인과 이주민 성도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변화를 시도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인은 섬김의 주체, 이주민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바꾸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울산교회의 경우만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의 축은 한국인 중심·한국인 주도의 선교, 즉 '이주민을 위한 선교(mission for migrants)'의 형태이다. 또 다른 한 축은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인은 거의 없이 이주민들로만 구성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태, 즉 '이주민에 의한 선교(mission by migrants)'라고 할 수 있다.

두 축의 모습은 언뜻 상반되어 보여도, 한국인과 이주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상호 간에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상을 띤다. 일부 한국교회는 언어와 민족 별 예배모임을 따로 갖도록 이주민을 배려(?)한다. 또한 여건이 되면 다양한 재정과 자원을 투자하여 한국인 성도가 예배드리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이주민센터' 또는 '이주 외국인 선교센터'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그런데 정작 이주민들 중 상당수는 본 교회 한국 성도들과 같은 공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이주민을 위한(for) 선교는 잘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주민과 함께하는(with) 선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교회 영어예배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주민들은 한국교회와 한국 멤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헌신에 정말로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문화와 서로 충분히 교제하지 못하는 데 있어 아쉬움을 느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마치 내리사

랑보다는 상호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함께 섬기는 동반자적 관계를 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 논의와 기도 끝에, 또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환경이 잘 조성된 덕분에 2019년 1월, 영어예배부가 울산교회에서 분립되어 울산의 도시 중심지(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중앙길 91)에 지금의 시티센터교회로 개척되었다. 처음 개척할 당시에는 필자의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인 멤버들이 4명, 영어 멤버들이 약 25명이 있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인 '봉사자'들이 개척팀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오히려 필자는 '봉사자'로 오려는 분들을 사양하고 봉사자가 아닌 '예배자'로 와달라고 했으며, 우리 영어 멤버들도 "우리가 봉사할게요. 우리가 한국인들을 섬길게요!"라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한국인 멤버들을 위한 한국어 예배에 영어 멤버들이 예배 안내로, 미디어로, 찬양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섬겨준 것이다.

영어 멤버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역 참여의 결과로 한국인 멤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기존 한국교회에서 느낀 적 없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통일시키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의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율법주의 또는 율법폐기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닌 복음 메시지에 은혜를 받은 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인 멤버와 영어 멤버 구성 비율이 약 6:4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시티센터교회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

교'의 모델로 느리지만 함께 선교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시티센터교회는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 즉 '더함' 공동체를 추구한다. 교회성장학자 도널드 맥가브란은 교회 성장과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종·언어·문화 등이 같은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방식, 이른바 '동질집단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를 소개했다. 이 원리는 선교 현장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이런 원리를 따라 많은 국내 이주민선교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주민을 위한(for) 선교' 또는 '이주민에 의한(by) 선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티센터교회는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with)하는 것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고백에 더 충실할(faithful) 뿐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더 결실한다(fruitful)는 믿음 하에, 비록 속도가 늦을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사실 사역을 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교는 매력적으로 들리나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인 위주의 선교는 시간적·재정적·문화적으로 참여와 헌신이 용이하고 이미 선교훈련을 받은 이들이 동원되어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등 사역의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다. 반면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기에 재정적인 헌신이 어렵거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한국 가족들과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한국인과 같은 선교에 대한 지식, 훈련, 열정, 헌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주민과 함께 선교하기란 제약이 많고 빨리 가기 어려운 길이다.(3면에 이어서)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두 그룹 사이의 문화적 장벽과 차이는 함께 걷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뤄냈으며, 이런 경제 효율성과 속도를 이상화하는 소비주의 문화는 한국교회 안에도 들어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옷이 되어 버렸다. 그 반면 사회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인 대부분의 이주민은 이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이렇듯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역의 효율성과 성공, 교회 성장의 속도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어쩌면 따로 걷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다. 혼자 하고 싶은 유혹, 따로 가고 싶은 유혹이다. 마음이 잘 맞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 동일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과 선교하는 것은 가치관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사역자 혼자 또는 선교의 열정과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선교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들 안에서 선교의 부르심과 열정을 불리일으켜 각자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선교하는 것은 더 느리고 오래 걸리는 과업이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인내심이 부족한 필자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어쩌면 광야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야 했다.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음은 도무지 빨리 걸어갈 수 없는

"이주민들을 위한(for migrants) 사역을 넘어, 이주민과 함께(with migrants)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걸음이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나는 약 640km의 광야 길(직선거리는 320km)을 그들은 40년간 걸어갔다. 그들의 행진 속도는 시간당 겨우 1.8m/h 정도였고, 하루에 겨우 44m/d 정도 전진하는 속도였다. 얼마나 느린가! 거북이도 그보다 빠른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 느리게 걸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들의 행진 속도는 끝까지 느렸지만, 함께 그리고 느리게 걷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그분께서 친히 시켜 주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의 걸음은 더 느렸다. 그분도 얼마든지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참아가며 느린 속도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베다니까지 3.2km의 거리를 가는 데 이틀이나 걸리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원망할 정도였다. 그분은 사역하시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다급한 재촉에도 언제나 느긋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여유

를 보이셨다.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은 한 번도 조금 한 적이 없으셨다. 그분의 선교는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나 더디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였겠지만, 철저히 소수의 제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한 그분의 느리게 걷는 사역은 오늘날 세계선교의 현장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열매 맺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기독교 역사가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주민선교를 위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for God) 얼마나 바쁘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with God)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때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being)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doing)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주민들을 위한(for migrants) 사역을 넘어, 이주민과 함께(with migrants)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주민선교의 길을 흑여 한국인 사역자, 한국인 봉사자들만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주민선교 역사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각종 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말하는 자리에 이주민(외국인) 사역자들의 설 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이주민 사역자, 이주민 성도들과 함께 걷기 위해 느리게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이주민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주민 선교의 주체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자리를 비켜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30년의 '이주민 선교 시대'는 한국인들이 주체가 되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mission for migrants)'나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주민에 의한 선교(mission by migrants)'를 넘어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파트너로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교(mission with migrants)'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한국인이건 이주민이건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이 되시기 위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서 이주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영적 이주민들이다. 우리는 한국인과 이주민이라는 구별과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인, 영적 이주민, 천국 시민권자라는 제3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제3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앞으로의 한국 이주민선교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주민으로서의 선교(mission as migrants)'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회 사역자에게 제안한다 4면

[인터뷰] 햇불트리니티 김윤희 총장 8·9면

디아스포라 선교학: 국제교회 6면

이주민선교를 수행하는 지역교회 모델 7·13면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10면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023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Teaching the Word, Changing the World!

1월전형 원서접수: 1/25 (수)까지

지원과정

목회학석사(MDiv), 일반신학석사(MTS), 문학석사(MA 기독교상담학/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석사(MEd), 예배음악석사(MWCM), 신학석사(ThM), 철학박사(PhD)

입학문의

02)570-7375, admissions@ttgu.ac.kr

www.ttgu.ac.kr



다문화교회 사역자에게 제안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대
러시아에서 승리교회 개척
일산 글로벌승리교회 담임

글

아름목사

필자는 다문화교회에 대한 개인적 견해 몇 가지를 공유할 것이다. 먼저 하나는 다문화교회와 다민족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형태의 교회가 모두 중요하지만, 다문화교회가 되는 것은 다민족교회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만약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 '유색인종'이 있다면, 다민족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회는 단순히 피부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달려있다.

문화가 이미 혼합된 곳에서 인종적으로도 다양해지는 일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 같이 먹고, 일하고,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다문화교회에 아시아인·아프리카인·러시아인·영국인 등 다민족 그룹이 오면 이미 전개되어 있는 다문화에 수월하게 적응해 나간다. 이는 이들이 타문화를 수용하고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교회는 단일문화교회보다 성장 속도가 더 느리다. 여러 민족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면 교회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건강한 다문화교회는 투명한 신뢰와 문화 관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계를 형성하

고 발전시키는 데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주민선교 사역자들 가운데 만약 목표가 성장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동종 집단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선교학에서 인정되어 온 사실로 '동종집단 원리'라고 불린다. 그러나 다문화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에 가치를 두고자 한다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멀리 가는 것을 택해야 한다.

이주민선교 사역자는 여러 다문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하려 한다.

첫째로, 포용적인 문화를 창조하려고 제안한다. 이주민선교 사역자는 특정 문화·민족·인종적 그룹이 교회의 목회 스타일(예컨대 음악, 구조, 기도의 형태 등)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교회의 목회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진 통전적인 방향일 필요가 있다. 이때 일부 성도들은 그들의 문화나 언어에 더 긴밀하게 연결된 예배 장소를 선호하여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의 성도는 자신의 문화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에 참여하고자 교회에 온다. 다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더 큰 문화에 속하는 것과 감사를 배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다문화교회는 포용적인 문화, 즉 모든 사람이 환영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이라고 제안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피

부색이나 출신지 때문에 정형화되거나 경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문화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대표되는 각 민족 집단과 문화를 향해 제대로 된 존경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곧 특정 문화를 비하하지 않고, 일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농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어·영어·러시아어 등이 유일하며 유효한 언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여러 언어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교회 내 다양한 사람들이 모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모국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모임은 정기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리더와 교회가 자신의 출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큰 위로를 얻는다. 만일 어느 나라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기도뿐 아니라 물질적 도움을 보내는 것에 대해 리더가 제안하고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로, 이주민 성도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이 교회와 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돕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민, 통역, 수업 등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나라에 오는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또한 사역자는 이민 논쟁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감정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이주민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다양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다문화교회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리더십과 플랫폼의 다양성이다. 모든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피부색이나 인종·민족적 배경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바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강단 설교, 예배 지원, 찬양 팀 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이주민 성도들에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주인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귀국 선교사들의 이주민 선교로의 전환을 돕는 MMTS4P-3기를 모집합니다.
필드 선교사님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귀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에 위대국제선교회는 국내 이주민 선교로의 전환을 돕고자 MMTS4P를 통해 귀국 선교사님들께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MMTS4P는 Prayer, Pre-Mission, Prizm, Peg 등 4가지 영역에서 10주 동안의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서
로잔디아스포라 GDN과 NextMove, iCDM, KWMA, KIMA 그리고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파트너십으로 함께 합니다.

MMTS4P



2023년 2월 5일~4월 9일
(10주간, 매 주일 저녁 7시)

장 소 : ZOOM 온라인
훈련비 : 10만원 (위대선교회 하나은행 464-910007-22804)
문 의 : 임진숙선교사 010-7590-0691
등록링크 : <https://forms.gle/Q91oqKeosC1HrGbY8>

주관 : 위대국제선교회

협력기관 : GDN NEXTMOVE iCDM 주안대학원대학교
디아스포라신문 대한국제선교협력회 KIMA

이주민 신학 / 정부의 이주민 정책 / 단일 문화권에서의 타문화 사역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 / 이주민 환대와 화해사역 등
이외에도 귀국선교사로서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영역 사역단체를 탐방하고 수료에 즈음하여 개인별 맞춤 연구 발표로
실체적인 사역에 도전을 줄 것입니다.

2023 디아스포라신문 신년 메시지

문창선 목사

본지 발행 편집인
위대국제선교회 대표

샬롬! 매일 발행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독자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민선교의 현장 정보, 문화역량 뉴스, 전문지식, 전략적 계획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이주민선교 사역자들이 제공하는 지역별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의 기고자들은 이주민선교 사역 환경 내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제휴된 학자들과 협력하여 이주민선교계의 현안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신문이 이주민선교의 리더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분산된 이주민이 약 10억 명으로 간주됩니다. 2억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반면,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토가 큰 나라의 변방에서 도시로 이

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이동함에 따라 세계선교를 위한 기회가 풍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이주민, 유학생 및 전문가, 다문화가정, 난민, 망명 신청자 등과 같은 특정한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훈련받은 지도자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주민을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지도자와 교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디아스포라신문은 단일 사회와 다원주의 사회를 아우르는 디아스포라의 특정한 환경에 맞게 맞춤화된 정보, 실용적인 뉴스를 전달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귀하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해 이주민선교에 관한 흥미와 전문성을 더욱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디아스포라신문의 구독자이자 미래의 멘토로서 이주민선교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기대합니다.

Shalom! It is our pleasure to invite you to read Diaspora Newspaper, which is publishing every month. Through Diaspora Newspaper, we are researching and sharing a local and global information of Migrants missions practitioners from all continents to collaborat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ntextual Diaspora Missions through field information, cultural competency news, migrant ministry internships and immersion, strategic planning and vision casting, and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Wrighters of Diaspora Newspaper will serve as mentors to persons who aspire to serve within a particular migrant ministry environment. They will collaborate with the Affiliate Scholars to address specific issues and needs among migrant communities and develop relevant strategies.

We envision Diaspora Newspaper to be catalytic in training leaders who will serve among the people on the move. It is estimated that almost one billion people are considered migrants, having been dispersed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Over 280 million people move to other nations internationally, while more than 700 million are displaced and dislocated internally. Opportuni-

ties for global missions abound as people move to all corners of the globe.

However, many congregations in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still lack trained leaders who can effectively serve distinctive variations of the diasporas, e.g.,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athletes, intercultural families, refugees, asylum seekers, smuggled and trafficked person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d professionals, among others.

While the number of church leaders and churches desiring to serve people on the move is increasing, few have the required competence and skills to do so. To address this tremendous need, Diaspora Newspaper plans to offer information, Practical news, cutting-edge training programs that will be customized for specific diaspora environments, including ministries in both monolithic and pluralistic societies.

We hope that you consider our invitation favorably and become an influential readers in Contextual Diaspora Missions!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acceptance as a Diaspora Missions Readers and future Mentor at Diaspora Newspaper.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Empowerment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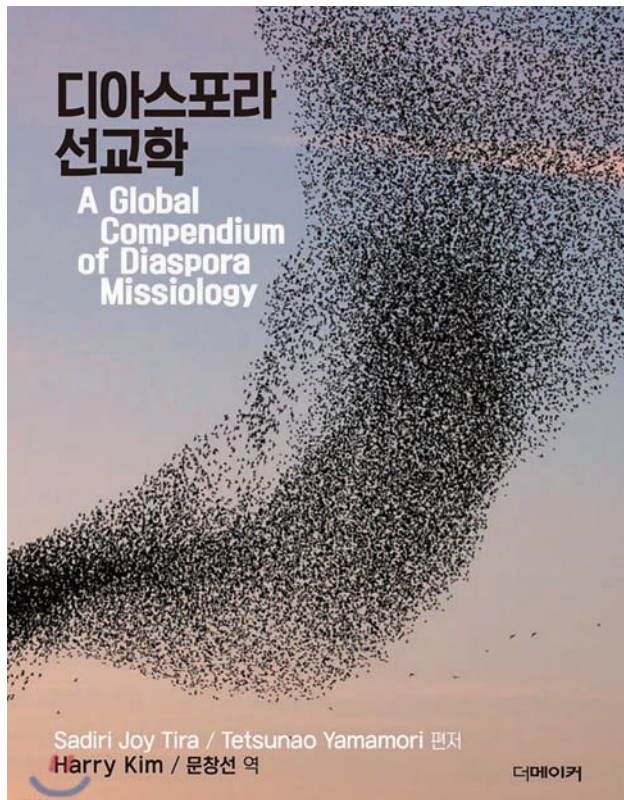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국제교회를 통해 대위임령의 잠재성에 도전하기



디아스포라 신문은 정기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처음 등장한 안디옥교회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상명령을 먼저 실천한 다음, 이들을 훈련하여 선교지로 파송하는 방식으로 재차 지상명령을 수행했다.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대위임령을 이뤄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일부 접근제한 국가는 외국인에게 취업 기회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줌으로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고, 이로써 선교단체가 갈 수 없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선교단체는 접근제한 국가에서의 교회 개척과 권한 부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쿠웨이트 라이트하우스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워렌

리브(Warren Reeve)는 '국제교회를 통해 대위임령의 잠재성에 도전하기'라는 주제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세계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 국제교회(International churches and fellowships, 이하 IC)가 있다. IC는 다양한 인종과 특징으로 어우러졌으며, 주로 이주민을 섬기는 성도의 모임으로써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를 보인다. IC는 대위임령을 이루는 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고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교파에 속하거나 초교파적이기도 하다. IC는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도시화가 동시에 충돌하고 공존하는 교차로이다. 이 교차로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복음으로 모으신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안디옥교회에서 IC의 DNA를 찾을 수 있다. 안디옥교회는 고대 시리아에서 고국을 떠난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와 로마 이방인들을 교차 문화적으로 환영했고, 그다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이주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민족, 나라, 방언, 족속에서 온 이주민들이 IC에 모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를 듣는다(계 5:9). IC는 각 국가, 문화, 계층의 '글로벌 노마드'들이 섞여 다양함을 드러낸다. IC는 대체로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이다. 건강하고 총체적이며 큰 영향을 끼치는 IC는 교파적 특징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한다.

IC의 출석자 상당수는 제2의, 혹은 제3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 영어는 60개국 이상에서 공통어이며 미디어를 통해 지구의 온 지역을 관통한다. 다수의 IC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현지교회를 개척하기도 한다. 내국인 교회 중 영어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은데, 이 모임이 확장해서 모교회에서 독립하여 IC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교회는 100개가 훨씬 넘는다. 또한 겉으로는 IC 같으나 내부로는 국제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다. 이러한 교회는 보통 한 민족, 한 국가, 한 언어집단만을 섬기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계하여 출석하는 외국인에게 게토 정신(ghetto mentality)을 장려하곤 한다. 교회명에 아예 '국제'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정작 IC의 DNA가 없는 교회도 있다. 세계선교에 대한 집중과 참여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 '국제'란 표현을 썼겠지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아무런 주안점이 없고 외국인 성도가 지상명령을 향해 움직이도록 이끄는 목표가 없는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의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IC의 가장 흥미롭고 격려가 되는 특징은 출석하는 이주민 성도들이 아웃리치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주자들은 모국에 있을 때보다 복음에 대해 훨씬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란 신분은 육체적으로 유랑민이 되어 문화충격을 받을 때 영적으로도 유랑민이 되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은 익숙한 정착지에서 분리되어 격동을 겪으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해 보다 열리게 되고, 복음에 대해 깊이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기도 한다.

모국어로 소통하고 고국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의 IC는 이주민에게 안식처가 된다. 이주민들은 과거 고국에서 교회 출석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으나, 이주한 국가에서는 예배로의 초대에 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 같은 배경을 가진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특별한 날의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날의 IC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주민에게 집이 되어 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영적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IC는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원주의의 신성한 교차로로써, 다음 교차로로 가기 전 이주민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영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개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과 교제를 나누는 다. IC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어디 서든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이것이 바로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모인 자들을 흠으시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선교는 더 이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다. 선교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기로 오는 것이며, 여기에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는 것이다.

선교단체가 접근제한 국가에 복음 증거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구촌 이주민 제자들은 집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규모가 크고

성숙한 세계 곳곳의 IC는 이주민과 지역 기독교인에게 장비와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 마나엔은 분봉 왕 헤롯과 함께 자랐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안디옥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마나엔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다. 과거의 안디옥 교회 처럼 오늘날 IC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터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들을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예비하셨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 선교적 IC는 복음의 도달 범위를 넓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를 통해 21세기 마나엔을 이끌 수 있다. 세계에는 약 2억 8천만 명의 이주민들이 자국을 떠나 살아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동질성과 종족중심주의에 도전장을 내민다.

오늘날 많은 IC는 하나님의 세계선교의 위임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C와 이주민 성도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갈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단과 선교단체의 후원이 매우 필요하다. 잘 개척된 IC는 수년 내에 자급자족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심오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IC에 모인 세계 이주민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배치하고 계심을 인정해 나가야 우리는 대위임령을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평택 심터교회 이주민선교 사역



심터교회 담임목사

글

이민기 목사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따라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자주 갔습니다. 하루는 감을 따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감나무밭에 갔습니다.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돕겠다며 나무에 달린 모든 감을 하나도 남김없이 따려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게 "민기야, 다른 새들과 동물을 위해서 몇 개의 감은 남겨두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과일나무에 등성등성 달린 열매들을 보면, '새들과 동물들을 위해 주인이 남겨놓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소재한 심터교회(기감)는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는 이주민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6년, 기쁜교회(기감)에서 '기쁜인도네시아선교회'를 조직하

여 지역 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위해 기쁜교회 내 예배장소를 제공하고, 갈 곳이 없는 이주민에게 쉼터(빌라 집)를 제공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6월, 기쁜교회에서 분리개척하여 '이주민들의 피난처(쉼터)와 같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심터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개체교회로 분리된 후부터 지금까지 기쁜교회 선교부 안에 이주민팀이 조직되어 심터교회를 위한 봉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터교회의 사역은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주민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그들의 언어인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찬, 명칭 등에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저는 2017년에 심터교회 두 번째 담임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동네에서 성탄절 홍보 현수막을 보고 '이주민들은 명절 연휴 때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설날에 지역사회 이주민을 위한 '설맞이 외국인잔치'를 열었습니다. 18년도 첫해에는 약 70명, 19년도 약 180명, 20년도는 약 2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코로나19로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이주민 국가를 잇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주요 구성원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5년에서 10년 이상을 고국에서 떨어져 지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가족과 귀국한 교우들을 만나고 돕니다. 18·19년 그리고 2022년도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베트남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역은 한국과 이주민 교우들의 국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넷째, 한국인을 교육 및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기쁜교회 평신도를 대상으로 '이주민선교학교'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2기 수료생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이주민사역에 동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선교단체와 동역하는 사역입니다. 2017년 교회에 부임한 후 평택 인근에서 이주민사역을 하는 교회와 기관을 답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교회와 기관장들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2019년에 '평택이주민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합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단체별 사역 현황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란 질문을 다시금 해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심터교회는 오늘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나무에 달린 열매를 이주민과 함께 나눕니다.



[인터뷰]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이하 핏볼트리니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꾼 양성을 목표로 1998년 국내 최초 전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으로 시작된 교육기관이다. 또한 특정 교회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학대학원으로, 학생 및 교수는 각기 다른 교단 배경 출신들로 구성되어있다.

핏볼트리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타문화 훈련에 있다. 매년 25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복음주의 신학을 배우게 된다. 선교적이며 다문화적인 학습 환경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모두에게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지금까지 한국 선교계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해온 핏볼트리니티의 방향성에 대해 듣고자 핏볼트리니티의 김윤희 총장을 만나보았다.



김윤희 총장

-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 FWIA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 대표
- 전국신학대학협의회 (KAATS) 수석부회장
-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KEOTS) 회장 역임
-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대학원 한국 목회학 박사과정 (KDMin) 교수
- 아시아복음주의연맹 (AEA) 여성위원장 역임

"교육(teaching)보다 배움(learning)이 더 중요한 시대"

"핏볼트리니티는 아카데미와 선교적 사고방식을 함께 품는 학교"

— 핏볼트리니티가 주도해나간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핏볼트리니티는 이미 신학교가 많이 세워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선교 지향적인 학교로 설립됐다. 서구에도 핏볼트리니티 같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곳에서 공부한 뒤 선교지로 돌아가면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서구를 따라가는 신학이 아닌 다수세계(Majority World)와 아시아에 적합한 신학이 주된 방향이었다.

한국은 기독교의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고 아시아에서의 위치도 안정적이기에 선교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이러한 선교 지향적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이라 생각했고, 이에 영어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가 세워졌다. 학교의 모토도 'Teaching the Word! Changing the World'이다.

대다수의 미국 신학교는 국제학생의 수가 적은 반면, 핏볼트리니티는 여러 나라 출신의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다중 문화 속에서 예배와 교육이 진행된다. 심지어 교파도 다 다르다.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국제적인 하나의 광장이라고 생각한다.

— 핏볼트리니티가 맺은 선교적 열매를 소개해달라.

졸업생 중 파키스탄과 이라크에서 온 학생들이 귀국하고 나서 파키스탄의 경우 바이블칼리지의 총장이 되기

도 했다. 보통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해 언어를 먼저 배운 후 현지에 교회를 세우지만, 이라크 같은 나라는 이조차 쉽지 않고 핏박도 많이 따른다. 그런데 핏볼트리니티의 경우 이라크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에 보다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식의 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핏볼트리니티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을 때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근래에는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다시 아프리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오래전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 리더로서 급성장한 모습과 유사하다.

또한 서구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보편적이라 했을 때, 핏볼트리니티는 그 중간지대라고 저는 생각한다. 전통적 신학교는 각각의 아카데미한 기준이 있는 반면, 핏볼트리니티는 아카데미를 지키는 동시에 선교적 사고방식을 함께 품는다. 따라서 서구의 전통적 신학교에 유학을 가는 경우 그곳에서 각자가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지만, 핏볼트리니티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다. 핏볼트리니티는 선교적 자원을 키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이후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외국인 학생만 입학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 프로그램에 한국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역시 선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에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선교로 나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영어로 교육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핏볼트리니티는 자국민을 선교적 자원화하는 데 앞서왔고, 이 일을 20년간 해왔다. 이곳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교회에 다니고 다양한 훈련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흡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핏볼트리니티가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자의 입장에서 세계선교의 트렌드와 그 예시를 설명해달라.

가장 먼저, 'From offline to online' 트렌드다. 이미 세계의 추세가 온라인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핏볼트리니티도 외국인 학생이 계속 한국에 있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div 과정 중에도 거의 한 학기만 들어와 1년 정도는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무슬림 선교에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에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온라인상에서 전도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이 하나의 돌파구가 된 것이다. 팬데믹으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셨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슬림뿐만이 아니다. 북한이나 중국도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From traditional evangelism to cultural penetration through digital' 트렌드가 있다. 과거 전통적 복음전파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온라인과 디지털을 통한 문화 선교로 각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문화선교가 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는 선교지에 가서 미디어를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하면 더 큰 반응과 관심을 얻는다. 함께 활동을 하고 교류하면서 효과적인 선교를 이뤄가는 것이다. 이처럼 선교전략은 다음세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맞춰 나가야 한다.

다음은 'From church life to market place' 트렌드다. 교회생활의 강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의 삶과 일터 속에서 일터신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요즘 시대에 선교사들이 성경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어느 누가 흔쾌히 받아들일겠는가. 그런데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역을 통해 채워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 입장에서 일터에서의 이슈를 다뤄주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From mono-choice to multi-choice' 트렌드다. 이는 하나의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MZ세대의 특

징 중 하나는 이들이 나노사회(nano culture)의 주류라는 점이다. 사회가 나노 단위로, 즉 개개인으로 조각난다는 것은 그들을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선택지도 다양하게 줘야 한다. 결국 교회도 갈수록 소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러한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그다음으로 '리더십 훈련'이다. 복음 전파를 하는 동시에 리더들을 양성하고 훈련한 후,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는 핏볼트리니티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가장 연관된 트렌드라고도 생각한다. 우리가 한국에 와있는 이주민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훈련을 통해 그들이 여기에서 사역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핏볼트리니티에 다니는 학생 중에도 베트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 학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다.

또한 'Cyber reach out' 트렌드가 있다. 유튜브, 팟캐스트, 성경에센스 등이 그것이다. 성경에센스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들에게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양질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일종의 미디어 사역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

— 교육계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앞으로는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추세로 갈 것으로 본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대학의 숫자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마이크로대학(Micro college)'이라는 개념도 서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학을 꼭 가야만 하는 필요성도, 전공의 개념도 모두 흐려지고 있다.

또한 시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제 지식 전달의 시대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구글링으로 알 수 있고,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헬라어도 유튜브 강의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한다. 결국 지금 시대는 교육(teaching) 또는 교육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배움(learning) 자체가 더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핏볼트리니티에서도 교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배움'을 더 일으킬 수 있을지 논의가 오가고 있다. 배움 중심의 학습이란 어떠한 정보에 관하여 얼마큼 흡수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적용을 해나갈 것인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고찰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굉장히 심도 있고 개별화(individualize)된 결과를 이끈다. 이러한 중요성이 간과되면 지식은 있으나 어떠한 변화도 없게 된다. 현재 새로 생기는 태재대학이 하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 학생은 유명한 강의를 제공받고, 교수의 역할은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트렌드를 핏볼트리니티는 통합세미나 등의 수업을 통해 실험해 보고 있다.

— 국내 이주민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핏볼트리니티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분명히 정규 교육기관으로써 비정규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상호간에 동의가 있다면 청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수료증을 부여하는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측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청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로그램이기에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핏볼트리니티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열어놓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 끝으로 기도제목과 새해 메시지를 전해달라.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항상 햇빛이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속담이다. 슬픔을 모르면 기쁨도 알 수가 없듯이, 팬데믹이 있었기에 공동체와 대면모임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나라의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공유하면서 유대감으로 이어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고 신학계의 방향도 달라졌다. 이 기간에 아시아복음주의연맹의 여성 컨퍼런스 모임도 줌(ZOOM)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무슬림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때 느낀 것이었다. 또 하나는, 팬데믹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쉼을 얻지 않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70년의 쉼을 얻었듯이, 안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라도 한국에 들어와 쉴 수 있었다. 그렇게 쉼을 얻었으니, 다시 움직일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뚫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한다.

저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세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2023년도 이러한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 모두가 도약하는 한 해, 기대되는 한 해, 전략적인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발휘하는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Jacques Attali는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세계는 갈수록 상업적 노마디즘(Nomadism)의 가속화로 향후 50년 내에 10억 이상의 인류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현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세계 인구의 1/6이 이동하며 살고 있다(Attali, 2005, 427).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William L. Swing은 '이주는 21세기 메가트렌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국내외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 이주자의 수가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고 언급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의 명맥을 이어온 한국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계선자 외, 2012, 116). 2022년 2월 말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재 단기체류외국인은 397,141명이며,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여 등록된 전체 체류외국인은 1,962,594명이다. 2022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 인구는 51,625,561명으로, 체류 외국인은 총 인구의 약 3.8%이며, 이는 곧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현상을 현실로 인식하여 체류 외국인을 선교적 대상으로 보고 국내 타문화권 선교로 눈을 돌려 다문화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선교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한 축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는 특수한 영역으로서 이주민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즉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처리하는 상황적 리더십을 가진 이주민전문사역자 육성의 필요성(구성모, 2015; 윤대진, 2016)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선교에서 외국인 사역자의 실제적 역할이 증가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필자는 이주의 시대에 국가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첫째, "외국인 사역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한국교회 내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 "외국인 사역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에서의 사역은 무엇인가?"이다. 한국 기독교의 교단별 외국인 사역자의 임용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정노화(2009)는 외국인들의 예배가 500여 곳을 넘어서고, 외국인 사역자들이 리더하고 있는 곳도 150여 곳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주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자의 인원과 사역 보고가 집계되어 있는 『GMS 다민족 사역연합제』(2020)에 따르면 이주민 사역은 대부분 한국인 사역자가 책임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역자 외에 부책임자로 외국인을 동역자를 두고 있다. 총 66여 기관(교회포함, 미취합 교회 28개 제외)에 사역중인 외국인 사역자는 전체 사역자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전윤조(2021)는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몇몇 국가별 외국인 사역자들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연락망을 통하여 사역자 통계를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포함) 250명, 러시아 약 100명, 몽골 약 50명, 베트남 35명, 인도네시아 약 25명, 캄보디아 10명, 방글라데시는 약 3명 등 총 8개 국가의, 약 473명의 사역자가 사역 중에 있다

고 보고하였다. 만약 타 교단과 집계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사역자를 고려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발제문에서 '이주민'을 국내 체류의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여 사용하고,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관련되어 통용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함을 밝힌다. '이주민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이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를 가리키며, '외국인 사역자'라는 명칭은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교회 내에 사역하고 있는 이주민을 부를 때 사용된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서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를 따라서 사용되며, 필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용어 사용을 기초로 하여 '다문화 사역자'가 아닌 '외국인 사역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Creswell(2018)은 문화기술지의 목적을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기술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문화공유집단을 연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그들 각자가 비록 다른 문화권 출신이나 그들이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공통된 문화적 배경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한국교회 내 사역자의 삶과 문화에 대한 현장의 살아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연구 방법의 한 방법론인 문화기술지의 연구 절차에 따라 한국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적 묘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인 한국교회라는 사회로 유입되어 장기간 삶을 이어온 특정 집

단인 외국인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치와 행동 그리고 신념, 언어의 공유, 상호작용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선별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조건에 맞는 외국인 사역자를 10명으로 선별하였고,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경북과 경남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10명의 외국인 사역자들을 선별하였다. (본 기사는 2022년 KIMA 포럼의 윤사랑 박사 발제문에서 3회에 걸쳐 기고한다.) ▶ 다음 호에 계속



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 박사
HOPE 선교사

글

윤사랑 박사

윤사랑 박사는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과 현장 자료 수집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자료는 질적자료 분석과정 프로그램인 NVivo 12를 활용하였다.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사항은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결과와의 보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먼저, 연구자는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 과정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승인번호: KU IRB 2020-0041) 또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본지 고문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글

황덕영 목사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중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계속 되기에,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상반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신자들에게는 단순히 삶의 연장일 뿐이겠으나, 성도들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여행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막 4:35~41).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

새해에는 희망과 불확실성이 함께 펼쳐집니다. 본문 속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은 칠후같이 어두운 밤에 제자들

로 하여금 호수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편"으로 여행하도록 초대하는 목소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래 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디아스포라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삶의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제자들의 믿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35절) 이 초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시를 내리셨고, 제자들은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낌 없이 따라갔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비록 모든 이동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야 할 정확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가 항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출발할 때 날씨는 분명히 평온했지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안전한 유람선이 아니라 작은 나무로 만든 배에 불과했습니다. 날씨가 급변하면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거의 덮칠 뻔했습니다. 제자들은 위험을 직감했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솟아오르는 파도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40절)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항해하기 어려운 밤에 호수를 건너가도록 하신 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제자들에게 상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항해 중 닥칠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건너던 호수에서 갑자기 죽을 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들의 스승이 무엇을 하실지, 할 수 있으실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버거워하는 핵심과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 이것은 어부로서 항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의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경험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의지하는 것

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주권은 위기의 순간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한계 가운데 제자들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배를 타고 항해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위험의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큰 파도에 위협을 받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은,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 이주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새해로 건너가는 이 순간, 느닷없이 닥칠 모든 위험 속에서 삶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www.diasporanews.kr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이주민에게

GMS/위대국제선교회 선교사
MMTS 심화과정 코디



글

최현주 선교사

2022년 10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 'MMTS(이주민선교훈련학교) 심화과정 4기'가 8주간의 여정을 마쳤다. 강의에서는 이주민선교의 여러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번에 수료한 훈련생 상당수가 집사님과 권사님이신데, 그중에는 이미 각자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이주민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섬김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다. 마지막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이주민선교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는 귀한 고백들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본 심화 과정을 돌아보며 로잔운동 슬로건이 떠올랐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함으로 성취되는데, 첫째로 선교의 주체는 온 교회이어야 한다. 이주민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아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나 선교위원회도 아니다. 이주민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둘째로, 선교의 대상은 온 세계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 세계 2억 8천만의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선교는 지리적 국경을 넘는 속지주의를 넘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루어지는 속인주의 선교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 주요 대상이 바로 이주민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길을 걷다 들려오는 외국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이 옷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주민들을 만난다. 그렇다면 전국에 흩어진 250만 이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주민 선교단체나 선교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절대다수의 이주민들을 포함한 온 이주민을 복음화하려면 결국 온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곁에 살아가는 땅끝 이웃들에게 다가 가야만 한다.

셋째,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선포를 넘어 삶으로 전해지는 총체적 복음이 필요하다. 이 땅의 이주민들에게 말을 넘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날마다 학교와 일터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MMTS(이주민선교훈련학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3년에도 기본 훈련 과정인 MMTS 클래식을 비롯해 MMTS 심화과정, 지역교회를 위한 MMCS(이주민선교위탁학교), 귀국선교사들을 위한 MMTS 4P 등이 열리게 된다. 부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이주민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주민 선교사와 선교단체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소망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이주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거리와 학교와 일터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3)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술 공동체 대표



글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 이어 본서 2장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마지막 내용을 요약하였다.

디아스포라 신학·선교학 정립을 위한 구성 요소

지금까지 살펴본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한 신학적, 선교학적 견해들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 호에서 소개된) 세 부류의 주장을 요약하는 가운데 발견한 공통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신학·선교학 정립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유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흠으시는 이유 이면에는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의도가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건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이 흠어짐으로 정체성을 상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의 굴레로 씌우시고 동시에 증인의 삶을 회복하도록 가르치시며 결국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급진적인 흠어짐(radical dislocation)'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권을 행사하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생생하게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분명한 목적 지향적인 '이주'의 전형을 보여주셨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민자(paraoikoi)이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적응하여 살면서도 천국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른바 '제 삼의 종족(the third race)'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최후의 연합과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아니할 양식에 소망을 둔 종말론적 신앙(Eschatology)을 가진다.

넷째, 교회의 정체성이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교회의 유동성(mobility instinct, 행 1:8)과 이민자의 속성(migrantness)에 있다. 신학자 팬(Phan)은 이민자의 속성을 가진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의 이민자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고 보았다. 진정한 교회는 전통에 기초한 제의 종교(성전 개념)가 아닌 예언자 전통에서 있는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학 관점들

이민의 자발성과 더불어 비자발적인 동기로 선교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선교적 이동(missional migration)의 유형은 미래 기독교의 선교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써 매우 중요하다.

①복음 전파와 사회 구원을 동시에 지향하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②다중 문화 속에서의 복음의 상황화 ③사회문화적 경계가 소실되는 탈지역화(deterritorialization) ④교차 학문적 관점(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⑤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경계 없는 선교의 영역 △성령 주도형 선교 △선교의 대상 등은 항상 유동적이 되었다. 따라서 유동적인 선교 대상을 따르는 경향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디아스포라 선교운동의 방향성은 지역·종족별로 시작되어 국제적 연대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디아스포라 현상을 보면, 먼저 지역별로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이룬 후 각 지역의 대표들이 흠어진 종족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기구를 만드는 수순을 보인다(대표적인 예: 필리핀 FIN 경우).

이민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와 네트워크 중심(network-driven)의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서구에서 서구(South-North)로 이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동도 촉진되며, 이들은 정착지에서 교회중심적·성육신적 증인의 삶을 살아낸다. 또한 가정교회, 소규모 공동체, 자비량 사역 등을 통해 과거 제국주의 교회가 아닌 신약시대의 모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글로벌 기독교의 성장도 이민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독교 이민자들은 유럽 이슬람 팽창에 대한 대응세력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후기 기독교사회

로 진입하는 서구를 재복음화하려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민 교회들은 기존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틈새 사역(도시빈민 구제 등)을 수행하며 종교다원주의에 친숙한 경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적응력은 다민족·다문화·다종교의 환경에서 선교할 때 잠재력으로써 충분히 발휘된다.

이민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지도자는 이동성·역동성·변화의 측면에서 도시 사역을 가장 전략적으로 전개하며 범세계적인 선교의 역량을 가질 수 있다(대표적인 예: 미국, 영국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메가처치 교회 지도자들).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은 디아스포라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조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흠으심'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을 깊이 깨닫게 된다.

이 주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복음적 역동성을 가진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의 잠재력이 모여 세계선교의 주류에 합류하도록, 본 주제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대청브릿지미션센터 네팔 이주민 사역



대청브릿지미션센터장
부산 대청교회 파송선교사

글

김성진 목사

대청교회는 2002년도부터 퍼스펙티브스(PSP) 훈련과정을 수료하면서 선교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선교세미나를 통해 체류외국인을 향한 관심이 생겼고, 2010년에 다문화한글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문화한글학교는 처음에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네팔인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 네팔예배부가 신설되어 약 4년간 네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예배부는 이주민선교의 전문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사역을 분립하기로 하였고, 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사상역 근처에 마련되었습니다. 대청교회는 이전에도 교회 내 중국유학생부를 부산대학교 근처에 독립적인 사역단체로 분립한 적이 있습니다.

▼ 네팔예배부 김해모임



네팔예배부는 사역분립을 위한 공간을 얻기 전, 교회 밖의 어느 카페를 대여하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로 오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기도회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마침내 12월 말 하나님께서 네팔 성도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대청브릿지미션센터의 목표

'대청 브릿지 미션센터'의 목표는 첫째로 네팔과 한국을 잇고, 둘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브릿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통해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팔인들이 부산에 왔을 때 센터를 통해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 네팔에 돌아가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중사역

네팔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첫째로, 유학생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청교회에서는 친교를 위한 수준의 한국어교실이 있었지만, 네팔인들의 요구에 따라 심화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네팔인들이 한국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에 왔지만 한국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주민들은 정착하면서 어려움을 겪



▲ 네팔로 돌아간 비스누 집사가 자기의 가정집을 열어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고 있는 모습

습니다. 이에 한국문화 강좌를 열고 설날·추석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네팔인들이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의료·일자·임금 체불 문제 등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도울 것입니다. 또한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말사역

주말에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센터로 와서 교제와 제자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부터 진행될 센터에서의 주말사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토요일 저녁에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밀양/가락, 김해, 양산/기장, 신평/녹산 총 4개 지역의 리더를 세워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일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로 돌아간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센터의 공간도 주어

졌기에 온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할 것입니다.

대청브릿지미션센터는 사상구 패벌동 554-4(사상로 175) 3층에 위치하였습니다. 1월 1일 주일 오후에는 파송예배를, 1월 7일 토요일에는 설립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위대국제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를 통해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선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대상 선교로 이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교회도 우리 곁에 와있는 이주민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한 공간과 사역을 그 나라에 알맞게 구성하여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산 사상지역에 이주민선교 공동체가 많아지고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꿈꿔봅니다. 마라나타!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름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타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성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5면 신년메시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Shalom! Xin gửi lời chào đến độc giả của báo Diaspora. Thông qua báo Diaspora, chúng tôi tập hợp các nguồn lực địa phương và toàn cầu từ các nhân viên truyền giáo di cư ở mọi châu lục để cộng tác trong việc hình thành và phát triển các nhiệm vụ hải ngoại thông qua thông tin thực tế, tin tức về năng lực văn hóa, chuyên môn về truyền giáo cho người di cư, lập kế hoạch chiến lược và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ù hợp.

Các cây bút của tờ báo hải ngoại sẽ đóng vai trò cố vấn cho những người muốn phục vụ trong bối cảnh công việc truyền giáo di cư. Họ sẽ làm việc với các học giả liên kết để đưa ra các đề xuất cho việc phát triển các chiến lược, nhằm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và nhu cầu cụ thể giữa các cộng đồng di cư.

Chúng tôi hy vọng rằng các tờ báo Diaspora sẽ trở thành chất xúc tác để đào tạo các nhà lãnh đạo phục vụ giữa những người di cư. Gần một tỷ người hiện được coi là những người di cư phân tán tự nguyện hoặc không tự nguyện. Hơn 280 triệu người đang di cư đến các quốc gia khác trên phạm vi quốc tế, trong khi hơn 700 triệu người phải di dời hoặc bị trục xuất khỏi đất nước của họ. Vì vậy có rất nhiều cơ hội cho sứ mệnh toàn cầu khi mọi người di chuyển đến mọi

nơi trên thế giới.

Tuy nhiên, nhiều tín đồ ở Hàn Quốc và các nơi khác trên thế giới là những nhà lãnh đạo được đào tạo có thể phục vụ hiệu quả các cộng đồng hải ngoại độc đáo như người di cư kinh tế, vận động viên quốc tế, gia đình đa văn hóa, người tị nạn, người xin tị nạn, người bị buôn bán, sinh viên quốc tế và các chuyên gia.

Ngày càng có nhiều giáo hội và lãnh đạo giáo hội muốn phục vụ người di cư, nhưng rất ít người có đủ kỹ năng và khả năng cần thiết để làm việc đó. Để giải quyết nhu cầu này, tờ báo Diaspora cung cấp thông tin, tin tức thiết thực và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iên tiến phù hợp với môi trường hải ngoại cụ thể, bao gồm cả các xã hội thuần nhất và đa nguyên.

Chúc mừng năm mới, chúng tôi hy vọng bạn sẽ trở thành một độc giả quan tâm nhiều hơn và chuyên môn hơn trong công việc truyền giáo cho người di cư qua các tờ báo Diaspora!

Chúng tôi mong rằng bạn sẽ góp phần trong công tác truyền giáo cho người di cư như là một độc giả của tờ báo Diaspora và sẽ là một nhà cố vấn trong tương lai.

번역기자 **빛샘**

www.diasporanews.kr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5면 신년메시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沙龙! 向月刊报纸Diaspora的读者们问安。为促进Diaspora宣教的形成和发展,我们藉着Diaspora报纸共享各个大陆移民宣教同工们提供的现场情况、文化力量新闻、移民宣教的专业性、战略方针和针对性教育项目等世界性情报。

Diaspora报纸的作家们将作为顾问帮助在移民宣教领域事工的同工们。他们将携手各领域学者, 针对如何通过制定开发

相关战略来解决移民群体之间的具体问题和需求提出建议。

我们期待Diaspora报纸能成为训练服务移民群体领袖的催化剂。当下, 或自愿或非自愿, 世界有近10亿人的移民分散各地, 其中超过2.8亿人移居其他国家, 另外的7亿人口在国内移动。随着人们移动到全世界的各个角落, 全球性使命的机会越来越丰富。

Shalom! Oylik diaspora gazetasi o'quvchilariga salom.

Diaspora gazetasi orqali biz diaspora missiyalarini shakllantirish va rivojlantirishda mahalliy ma'lumotlar, madaniy va kolatlar yangiliklari, migrantlar missiyalari bo'yicha ekspertiza, strategik rejalashtirish va barcha qi'aldagi migrant missiya ishchilari uchun moslashtirilgan ta'lim dasturlari orqali hamkorlik qilishga intilamiz. Biz taqdim etilgan mahalliy va global ma'lumotlarni tadqiq qilamiz va almashamiz

Diaspora gazetasi mualliflari migrantlar missionerligi doirasida xizmat qilishni xohlovchilarga maslahatchi bo'lib xizmat qiladi. Ular muhojirlar hamjamiyatlari o'rtasidagi muayyan muammolar va ehtiyojlarni hal qilish uchun strategiya va strategiyalarni ishlab chiqish bo'yicha takliflar berish uchun filial olimlari bilan ishlaydi.

Umid qilamizki, diaspora gazetalari ko'chirilgan odamlar orasida xizmat qilish uchun rahbarlarni tayyorlash uchun katalizator bo'ladi. Hozirda bir milliardga yaqin odam ixtiyoriy yoki majburiy ravishda tarqalib ketgan migrantlar hisoblanadi. 280 milliondan ortiq odam xalqaro miqyosda boshqa mamlakatlarga ko'chib o'tgan bo'lsa, 700 milliondan ortiq odam esa o'z mamlakatini tashlab ketishga majbur. Odamlar

dunyoning har bir burchagiga ko'chib o'tayotganda global missiya uchun imkoniyatlar ko'payadi.

Biroq dunyoning ko'p joylarida, shu jumladan, Koreyada jamoada iqtisodiy muhojirlar, xalqaro sportchilar, ko'p madaniyatli oilalar, qochqinlar, boshpana izlovchilar, odam savdosi qurbonlari, xalqaro talabalar va mutaxassislar kabi noyob diaspora guruhlariga samarali xizmat qila oladigan o'qitilgan yetakchilar hali ham etishmayapti.

Garchi ko'plab jamoat rahbarlari va jamoatlar muhojirlarga xizmat qilishni xohlashsa ham, biroq buning uchun zarur qobiliyat va ko'nikmalarga ega bo'lganlari juda kam. Ushbu ehtiyojni qondirish uchun diaspora gazetalari diasporaning o'ziga xos muhitiga, shu jumladan, yaxlit va fikrlar turli bo'lgan jamiyatlarga moslashtirilgan ma'lumotlar, amaliy yangiliklar va zamonaviy ta'lim dasturlarini taqdim etadi.

Yangi yilni nishonlab, diaspora gazetalari orqali migrantlar missiyalaridan ko'proq qiziqish va tajriba oladigan o'quvchi bo'lishingizga umid qilaman!

Sizni diaspora gazetasi o'quvchisi va bo'lajak murabbiy sifatida migrantlar uchun missiyaning ta'sirini namoyish qilishingizni kutamiz.

번역기자 **정요셉**

然而, 包括韩国在内的世界许多地区仍然缺乏可以有效服侍经济移民群体、国际运动员、多文化家庭、难民、流亡申请人、被贩卖人口、留学生等移民群体的领袖。

虽然越来越多的教会领袖和教会参与到服侍移民的事工中, 但具备专业能力和技术的人却极为少数。为解决此问题, Diaspora 报纸根据包括单一社会和多元主义社会在内的特定

Diaspora环境, 提供针对性信息、实用性新闻、以及最尖端的教育项目。

在新的一年里, 愿您成为本报忠实的读者, 并通过Diaspora 报纸关注移民宣教, 成为具有专业性的读者!

我们期待您成为Diaspora报纸的订阅者并且在未来成为移民宣教领域具有影响力的导师。

번역기자 **묘초초**